제91회 춘향제의 시작 '춘향제향'

남원시립국악단 참여
12가지 제례 절차 진행

춘향제전위원회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제91회 춘향제 대표프로그램인 '춘향제향'을 19일 오전 8시 30분 광한루원 누각에서 진행했다.

춘향제향은 1931년 춘향의 절개를 이어 받기 위해 춘향사당에서 남원 권번의 주관으로 추모의 제를 올린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여성이 제관을 맡아 진행하는 유일한 행사이다.

제향 진행은 남원시립국악단이 참여해 11명의 제관과 제원 8명, 악사 10명이 점촉례, 점시례, 분향례, 전폐례, 참신례, 초헌례, 아헌례, 종헌례, 유식례, 사신례, 음복례, 분축례 등의 12가지 제례 절차로 장엄하게 진행했다.

올 춘향제향은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비대면·온라인으로 광한루원 개장시간을 늦추어 추진되었으며, 유튜브 채널 남원와락을 통해 관람을 할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사진은 춘향제향 모습.

후백제 역사·문화 담은 학술도서 발간

국립전주박물관·전주시·장수군청·군산대 가야문화연구소 '후백제와 견훤'

국립전주박물관(관장 홍진근)이 전주시(시장 김승수)·장수군청(군수 장영수)·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소장 곽장근)와 함께 후백제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정리한 학술도서 '후백제와 견훤'을 발간했다고 전했다.

이 책은 2020년 개최된 국립전주박물관 특별전 '견훤, 새로운 시대를 열다'와 연계해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돼 학술대회의 발표 자료를 다듬어 묶은 자료다.

이에 따르면 후백제와 견훤왕의 역사는 우리 한국사에서 전북지역뿐만 아니라 고대에서 중세로의 과도기를 관통하는 데 있어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학술도서는 대표적인 후백제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집필했으며, 후삼국시대의 태동과정과 배경부터 근래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후백제 문화권' 설립의 당위성까지 후백제 역사 연구의 총람이라고 할 수 있다.

홍진근 관장은 "이번 학술도서가 후백제와 견훤왕에 대해 관심있는 시민들에게는 하나의 안내서로, 관련 연구자들에게는 새로운 연구로 확장해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후백제와 견훤'은 비매품으로, 향후 국공립도서관 등에 배포해 후백제와 견훤왕의 역사를 알리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순창군, 6월부터 버스킹 공연 참가팀 모집

26일까지 접수… 10팀 내외 선발

순창군이 올 6월부터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지역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군민들의 코로나 블루 극복을 돕기 위해 버스킹 공연에 나선다. 이를 위해 군은 오는 26일까지 버스킹 공연에 참가할 공연팀을 모집한다.

공연은 노래, 연주 등 버스킹에 적합한 장르이고, 전라북도에 주소를 두고 활동하는 개인 및 팀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군은 코로나19 확산세로 축제나 행사가 취소되면서 지역 예술인이 설 자리가 줄어들어 이들의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지자 이를 해소할 방안으로 야외 버스킹 공연을 준비했다. 또한 지난해보다 줄어든 문화공연으로 문화공연에 갈증이 많았던 군민들에게 문화적 감수성을 조금이나마 채워줄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군은 중앙광장과 일품공원 등 군민들의 이동이 잦은 곳에 버스킹 공연을 배치해 남녀노소 누구나 거리를 오가며 편히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관내 주요 관광지 등에도 버스킹 공연을 진행해 순창을 찾는 관광객에게도 멋진 공연관람의 기회를 선사할 예정이다.

버스킹 공연의 참여를 희망하는 참가자는 오는 26일까지 지원신청서와 자신들이 선보인 공연동영상을 첨부해 순창군청 문화관광과를 방문해 접수하거나 이메일(wonmin9094@korea.kr)로 접수할 수 있다. 또한 우편을 통해 접수가 능하며, 오는 26일 오후 6시 도착분에 한해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

순창군이 올 6월부터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지역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군민들의 코로나 블루 극복을 돕기 위해 버스킹 공연에 나선다.

군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적합성과 대중성 등을 평가해 최종적으로 10팀 내외로 선발할 계획이다. 선발된 팀은 팀당 1~3회 정도의 공연을 진행할 예정이며 소정의 공연료도 지급한다.

노홍균 문화관광과장은 "이번 버스킹 공연 신청 공모를 통해 지역예술인들의 활동에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또한 코로나19로 힘든 요즘 군민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걱정 등을 조금이나마 위로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버스킹 참가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관광과 문화예술계(063-650-1625)로 문의하거나 순창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국보 제62호 미륵전 벽화사진전·인경체험 진행

김제시, 금산사 경내 성보박물관 앞마당서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금산사(주지 일원스님) 경내 성보박물관 앞마당에서 '국보 제62호 미륵전 벽화사진전 & 인경체험'을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열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3층의 대규모 건물 내외벽에 많은 벽화를 품고 있는 국보 제62호 금산사 미륵전의 가치를 선양하고 감상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는 벽화들을 일반인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기획됐다.

금산사는 벽화와 미륵전의 이미지를 판각하여 인경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도 열었다. 인경체험은 경전을 인쇄해 보는 것으로 자원봉사자들의 안내에 따라 관람객들이 원하는 작품을 찍어볼 수 있다. 이 자리에서 시연하는 작품은 벽화를 판화로 재현하거나 미륵전을 묘사한 것으로, 금산사와 벽화전시회를 관람한 기념품으로 방문객들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금산사 주지 일원스님은 "5월 19일 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국보 제62호 미륵전이 시민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벽화 사진전을 개최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미륵신앙의 본원종찰이자 시원사찰로서 위상을 세우고, 다양한 학술활동과 신행, 체험활동을 소개하여 시민들이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펜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게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옥),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